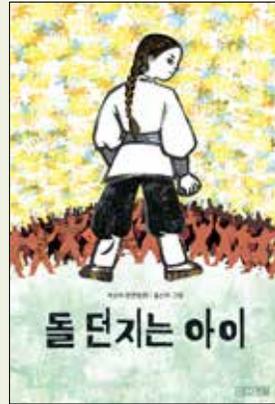

무신정권 시대에 자유를 외친 사람들

고려 만적의 봉기

5학년 2학기 사회

- 2.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 4) 고려 문화의 발전

#고려 #무신정권 #만적의봉기



돌 던지는 아이
서성자 지음 | 홍선주 그림



노비 몽개는 주인집 도령 지상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고, 지상이의 도움으로 지상이의 스승님에게 글도 배웁니다. 몽개는 글을 익힐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비와 백성의 삶을 알게 되고, 노비 만적이 말하는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적과 그의 동지들에게 눈과 입이 되어 주기로 합니다. 노비 몽개의 시선으로 '고려 시대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인 만적의 봉기(1198년)를 그린 역사동화입니다.

책 속에 숨은 역사

1. 무신정권은 어떤 시기인가요?

고려 중기 무신정권(1170~1270년) 100년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정중부, 이의민, 최충헌, 최우 등 모두 열한 명의 장군이 왕을 넘어선 권력을 차지하고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허수아비로 삼고 나라를 쥐락펴락했지요. 반면 백성들은 먹고살기가 너무도 힘들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라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만적과 망이·망소이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몽골의 침입이 시작된 시기도 무신정권 때이니 무신정권 100년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신정권도 문신에 차별받는 무신들의 처지를 억울해하면서 시작한 것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차별에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정작 백성들에 대한 차별과 고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무신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고려 시대 신분 제도

고려 시대 신분은 크게 귀족, 중류층, 양인,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고려의 귀족은 높은 벼슬을 독점하고 대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며 금과 은, 비단 등으로 치장하고 청자를 사용하며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급 지배층인 중류층은 지금의 공무원과 같이 궁궐과 관청에서 귀족을 도와 실질적인 업무를 보던 관원들과 군대의 하급 장교를 말합니다. 양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며 병사가 되어 싸우는 일반 백성을 말하며,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고려의 최하층인 천민은 노비였으며 귀족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뱃사공인 진척, 도축업자인 화척, 노래와 음악 등의 재주를 가진 재인들은 천민처럼 취급되어 노비와 비슷한 처지로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3. 무신정권시대 백성들의 봉기

봉기(蜂起) ‘벌 봉(蜂)에 일어날 기(起)’. 말 그대로 참다못한 백성들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신정권 시대에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이익민을 비롯해 장군, 관리 등 높은 자리에 오른 노비 출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은 ‘누구나 때가 되면 왕이나 왕비, 장군과 재상이 될 수 있다’고 외치며 신분 제도를 없애려 동료 노비들과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 명학소(지금의 대전)에 살던 망이·망소이는 ‘향, 소, 부곡’으로 불리던 마을에 내려지는 차별과 지나친 세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청도 전체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뒤를 이어 전주의 관노비, 담양의 이언년 형제, 경상도의 김사미, 효심, 이비 등이 봉기를 일으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비록 몽골이 침략하며 백성들의 봉기는 잦아들었지만 차별과 불의에 저항한 그들의 높은 정신은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1. 고려 궁터

고려의 도읍지는 현재 북한 지역인 개경(개성)입니다. 왕건과 공민왕의 왕릉도, 책의 주인공 몽개와 만적이 살았던 흔적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개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의 고려 궁터 복문 언덕입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몽골이 침략해 오자 천연 요새인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강도라 불리며 그 후 40년 가까이 고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려 궁터는 바로 강화도 읍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경 못지않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뿐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개경으로 돌아갈 때 약속에 따라 우리 손으로 다 부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쌓았던 강화산성은 그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 궁터 뒤편으로 5분만 걸어 올라가면 복문이 나옵니다. 그



강화산성

꼭에 올라가면 저 멀리 개경 땅이 보입니다. 강화산성 북문에 서서 몽개와 만적이 바랐던 자유의 바람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시대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박물관입니다. 이웃한 전쟁기념관이 전쟁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교과서의 유물과 이야기를 전시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유물과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충헌의 불경, 이규보의 책 등 몽개와 만적이 살았던 시대의 유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던 2018년에는 고려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가 매년 새롭게 펼쳐졌을 정도입니다.

3. 명학소(망이·망소이) 민중봉기 기념탑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봉기는 만적이 봉기와 더불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백성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봉기를 일으킨 명학소는 당시에는 공주목에 속한 곳이지만 지금은 행정 구역상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의 남선

공원에 가면 명학소(망이망소이) 민중봉기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에는 망이망소이 형제의 동상이 멋지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꼭 공원을 올라 그들의 합성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 리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리움은 국보와 보물만 해도 150여 점이 넘는 국내 최대의 사립박물관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고려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청자와 불화, 사경, 금속공예품이 가득합니다. 수월관음보살도, 아미타삼존도, 지장도는 고려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세계적인 미술품입니다. 무신정권에 만들어진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70년에서 1270년 사이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청동은입사 향완과 청자상감 국모란문 신축명벼루가 무신정권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화려한 물건들을 사용한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몽개와 같은 노비나 백성들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백성들의 삶도 함께 읽어 내길 바랍니다.



현장에 다녀와서 무엇을 할까?

1. 무신정권 100년의 역사 웹툰 만들기

A4 용지에 6개로 칸을 나누어 무신정권 100년 역사 중 중요한 장면들을 그려 봅니다.

보현원 사건 (장군들의 수박대결)	처음 권력을 잡은 이의방	최씨 무신정권 시대 (의자에 앉아 있는 최충헌)
만적의 난 (정(丁)자 종이를 손에 든 노비들)	최우가 만든 삼별초 (몽골과 싸우는 삼별초)	무신정권의 최후 (개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2. 고려 백성들의 봉기를 지도로 그려 보기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킨 도시를 찾아 표시합니다.

·각각 도시마다 3칸을 만들어 봉기를 일으킨 인물, 연도, 내용을 적습니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추천도서

★열린어린이 권장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